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 반복...명백한 행정 실패”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1·2단계 개통시기 불투명...재정비 절실
임미란 “로드맵 공개·대선공약 대응” 촉구
市 “유찰구간 보완 설계...공정관리 만전”

2019년부터 추진 중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업을 전면 재정비하고 대통령 공약이자 국가 정책으로 격상된 3단계 구간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사진)은 15일 제3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는 더 이상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을 중앙 정부 탓, 지하암반 예측 실패 탓, 경제성 부족 탓으로 발 빼지 말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면적인 행정 리셋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수년간 이어진 2호선 공사로 도로 미복구, 건물 균열, 소음과 먼지 등에 따른 누적 민원이 3천건을 넘어섰다”며 “이는 행정착오 수준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생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구조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1단계 공사는 당초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두 차례 연기됐고, 최근에는 2027년 개통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단계는 시공사 선정 유찰이 반복되며 2030년 개통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3단계는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단순한 공사 지연을 넘어 사업 계획 수립과 진행 전반의 총체적 부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시는 공사 지연 원인으로 설계 변경, 민원, 암반 노출 등을 꼽고 있지만 이는 초기 계획 수립과 사전 조사 부실의 결과”



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총사업비는 당초 계획 대비 80% 이상 증가한 3조1천450억원에 달해 지방비 및 지방채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전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2단계 구간 중 7·10공구는 5차례나 시공사 선정이 유찰돼 착공이 장기 지연되고 있으며 1단계 지반 침하 사고도 시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2호선 개통이 지연되면 시내 버스 노선 개편, 광주형 ‘대자보’ 교통정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3단계 구간 사업 추진과 관련, 임 의원은 “1·2단계 공사 지연과 총사업비 증액, 예산 이월로 장기 표류하고 있는 3단계 노선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하라”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는 만큼 특별사업으로 지정하고 ‘시장 직속 공약 이행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가장 큰 불편 사항인 도로 단차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도로 미개통 구간 포장 작업을 실시해 일주일 안에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전체 구간 도로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단계 구간 유찰에 대해 강 시장은 “현장 여건 개선과 현실성 있는 공사비 반영을 위해 현재 보완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총사업비 협의 및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연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1단계 구간은 종합공정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2단계 구간은 시공사가 선정되는 대로 공정 관리 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계획이다. 3단계 구간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해 국경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구할 것”이라며 “전체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서구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김이강 서구청장이 15일 광주시서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구 지역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시서구제공>

“RE100 산단 호남 성장·발전 기폭제 되길”

대혁신호남포럼 “서남권 조성 방침 환영”

“전남·전북·광주 협의의 큰 그림 그려야”

대혁신호남포럼(이하 호남포럼)은 15일 “이재명 정부의 RE100 산단 서남권 조성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호남포럼은 이날 공동대표단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RE100 산단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 호남 성장·발전의 기폭제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호남포럼은 “RE100 산단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지역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100% 활용하는 산단으로 서남권, 즉 호남이 최적지임이 틀림없다”며 “정부는 서남권과 울산울산을 우선 대상으로 해 특별법 제정과 규제

혁파를 통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남포럼은 “이번 발표는 지금까지의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돼 낙후된 호남을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이자 전환기(Epoch)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발표가 진정한 지역 미래 성장 동력, 좋은 일자리 등을 창출해 진정한 호남 경제의 활성화에 근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남포럼은 “해상풍력, 태양광 등을 통해 서남권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곳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전력계통을 서둘러 설치하고 대규모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관련 기업들이 이전 또는 투자할 수 있도록 파격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질 높은 주거·편의·문화시설 등을 갖춘 신도시 역시 조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호남포럼은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RE100 산단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전남도·전북도·광주시 등 호남 지방 자치단체들은 정부 방침에 맞춰 RE100 산단 부지 선정, RE100 산단 주요 업종, 기업 유치에 필요한 인센티브, RE100 산단과 연계한 신도시 개발 방안 등을 서둘러 마련해 절호의 기회를 잘 살려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호남포럼은 “호남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남·전북·광주가 하나가 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 큰 그림을 그리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호남권 3개 시·도의 협업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재정 기자

조옥현 도의원 “미래항공교통 실증 전남 서부권 확대를”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사진)이 미래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AAM) 실증 사업의 전남 서남권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최근 전남도 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AAM 사업 추진 시 전남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 안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AAM은 UAM(도심항공교통)과 RAM(지역항공교통)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전남



은 도심보다는 지역 기반의 항공교통인 RAM 실증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현재 AAM 실증 사업 대상지가 여수·고흥 등 전남 동부권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아쉬다”며 “36년째 의과대학 설립이 미뤄지고 있는 전남 서부권의 열악한 응급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서부권까지 포함한 전남 전역으로 실증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 아동학대 대응인력 워크숍...협력 기반 조성

전남도는 15일 담양 드몽드호텔에서 2025년 전남도 아동학대 대응인력 유관기관 워크숍을 열어 ‘아동학대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전남’ 조성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졌다.

워크숍은 아동학대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남도, 시·군, 경찰청 학대예방 경찰관(APO),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소

등 유관기관과 현장 실무자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생존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의 ‘위기청소년의 삶과 생존’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협력사례 공유, 대응인력 역할에 대한 조별 토론 등 순으로 치러졌다.

전남도는 워크숍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인력 간 관계 증진과 실무적 협력 강화의 장을 지속 조성하고, 실질적이고 신속한 아동학대 대응 및 현실감있는 아동보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미숙 여성정책지원관은 “아동학대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뢰와 정보 공유,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아동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건강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안전한 광주전남

이제, 우리마을 교통안전은

차만손

으로

도로를 건널때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횡단의사 표시해요

광주광역시
Jeonnam
광주경찰청
Jeonnam Metropolitan Police
광주광역시교육청
Jeonnam Office of Education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왜, 차만손 운동이 필요한가?

- 고령보행자는 접근차량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건너갈 때는 차만손 해요.
- 운전자는 느린 보행의 고령자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운전자에게 멈추라고 차만손 해요.
- 우리나라는 고령자 사고가 아주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 차만손 해요.
- 달리는 차를 향해 손을 들면 대부분이 멈춰요.
그래서, 느린 보행의 고령자는 차만손 해요.